



30~49세 근로세대, 노후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순자산 관리 필요

최장훈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고령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산과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30~49세 근로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낮아 노후를 대비한 적극적인 순자산 관리가 필요함. 재정패널을 분석한 결과 30~49세 순자산 가치는 물가를 고려하면 5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금융자산이 늘고 부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자산의 감소가 훨씬 컸기 때문임. 따라서 30~49세 근로세대는 순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지출 조정 계획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고령화¹⁾와 장수화²⁾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 근로세대의 노후를 대비한 자산과 부채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4배나 높음³⁾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를 밑돌고 있고, 적용 제외, 납부 예외 또는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큼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24%⁴⁾에 불과함⁵⁾
- 특히 근로세대의 순자산은 노후세대보다 낮아지고 수명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자산 관리의 필요성 또한 높음

1) 65세 이상 인구 수(노인)가 증가하는 현상임(노인인구비율(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 수/전체 인구 수)

2) 기대수명(혹은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기대수명(0세 기준 기대여명)은 1975년 64.2세에서 2015년 82.1세로 17.9세 증가(연평균 0.45세 증가)

3) OECD(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4) 24% = (2017년 신규수급자의 연금급여액 평균(만 원) / 2017년 A값 218만 원) × 100

5) 연합뉴스(2017. 12. 28), "[2018 국민연금 30년] ② '용돈연금' 벗어나 국가지급 보장돼야"

■ 일반적으로 가구 전체의 순자산은 매년 증가하나 세대 간 순자산의 증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 세대별로 그 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⁶⁾

- 전체 가구의 2017년 순자산은 31,142만 원(경상가)으로 2016년 순자산 29,918만 원(경상가)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도 경상가로는 전 연령대에서 모두 2016년에 비해 증가함
- 청년 실업이 높고 젊은 층의 근로환경이 과거보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젊은 층인 30~49세 근로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2015년 30~49세 근로세대와 2010년 동일 연령대의 순자산의 현가⁷⁾를 비교한 결과, 과거(5년 전)에 비해 동일 연령대의 순자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후 준비의 여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5년 5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5년 전 동일 연령대에 비해 높아졌으나 30~4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5년 전 동일 연령보다 오히려 낮아짐
- 2015년 30~49세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2010년 동일 연령의 순자산보다 낮고, 이러한 패턴이 은퇴시점까지 지속된다면 이들의 노후자산은 앞선 세대에 비해 노후자산이 적을 것으로 추정됨

〈표 1〉 세대별 자산 및 부채 비교(2010년 vs. 2015년)

(단위: 만 원, 증가율)

구분	순자산(A=B+C-D)	금융자산(B)	비금융자산(C)	부채(D)
2010년 30세~49세	22,454	3,452	24,407	5,405
2015년 30세~49세	21,649(-3.6%)	3,542(2.6%)	23,472(-3.8%)	5,365(-0.7%)
2010년 50세 이상	25,101	3,351	25,303	3,553
2015년 50세 이상	28,352(13.0%)	4,215(25.8%)	28,281(11.8%)	4,144(16.6%)

주: 1) 2016년 기준으로 현가화함
 2) 괄호 안은 2010년 대비 증가율임
 3) 비금융자산은 부동산, 회원권, 귀금속, 농기계, 중장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3차(2010년)와 8차(2015년) 데이터 분석 결과

■ 30~49세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과거보다 금융자산이 늘고 부채는 줄었지만 비금융자산의 감소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임(〈표 1〉 참조)

6)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17. 3. 31 기준)에 의하면, 전체 가구 대상으로 2017년 순자산은 2016년보다 증가(경상가 기준)함
 7) 현가로 비교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에서 순자산의 가치를 비교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여기서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함

- 30~49세의 2015년 금융자산은 2010년 동 연령대의 금융자산보다 모두 증가하였고 반대로 부채는 모두 감소하여 순자산을 늘리는 역할을 함
 - 이에 반해 비금융자산은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 규모⁸⁾가 훨씬 커 순자산은 낮아짐
 - 2015년 30~49세가 받을 국민연금 지급액은 2010년 30~49세보다 높아져 노후자산의 개선 여지는 있지만, 그 개선 정도는 순자산 차이와 기대수명 차이에 비하면 적을 것으로 판단됨⁹⁾
- 따라서 미래의 노후세대(현재 30~49세의 근로세대)가 빈곤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 및 지출 조정 계획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각 가계는 현재의 자산과 부채 관리뿐만 아니라 은퇴 시의 자산, 부채, 그리고 은퇴 후의 소득을 예측하고 이에 맞게 지출을 조정하여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또한 30~49세의 젊은 세대에게 자산과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kiri**

8) 전체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2015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금융투자협회) 참조)

9) 유사한 연구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1,2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 시 자산 적정성 비교분석」(보험연구원, 2018년 1월 발간 예정) 참조 바람